

완도·신안·고흥 어촌 정주 여건 개선된다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공모 선정...국비 149억 투입

완도·신안·고흥지역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에 완도·신안·고흥군이 선정됐고 '어촌 빈집재생 공모사업'에 완도군이 선정되면서 낙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이 본격화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생활기반을 활용한 수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복한 삶터 조성',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나눠 공모가 진행됐는데, 전남에서는 완도·신안군이 행복한 삶터 조성 분야 공모에 선정됐고 고흥

군은 시·군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들 3개 시·군에는 국비 149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현재 16개 지역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며 많은 시·군이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공모사업 대응 전문가 초청 강의, 공모대응 계획 수립, 시군 연합회 개최로 사전컨설팅 제공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해수부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어촌 빈집 재생사업의 경우 어촌·어항재생사업 구역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 빈집을 정비하는 사

업이다. 전남에서는 완도군이 선정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해 어촌 지역 가치 상승 유도 및 어촌의 지역 소멸 대응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촌공간의 생활기반 확충, 어촌 삶의 질 향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낙후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증문화유산 특별전

10월까지 전남도농업박물관

제 4회 '기증문화유산 특별전'이 10월까지 전남도농업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기증, 삶의 기억을 전하다'를 주제로, 지난해 박물관이 수증한 소장품 중 200여점을 선별해 기록 문화유산, 전승 문화유산, 간직 문화유산 등 3부로 구성해 진행했다.

기록 문화유산 분야 전시품은 일제강점기 전남의 전반적 실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106개 항목을 통틀어 작성한 '도세일반(道勢一斑)'과 '전남의 산업' 등이다.

전승 문화유산 분야에는 국가 또는 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채상, 낙죽, 선자, 죽림, 참빗, 장도, 궁시, 소반, 청자, 용기 등이 있다. 간직 문화유산은 쟁기 세레 등 각종 농기구를 비롯해 다양한 민속 생활용품을 선보인다.

10월까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된다.

전남도농업박물관 관계자는 "기증문화유산이 지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 코로나 방역물품 긴급 배부

재난관리기금 3억 투입

전남도가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투입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 배부하기로 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남도 차원에서 기저질환자가 많은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등에게 선제적으로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남도는 재난관리기금 약 3억 원을 긴급 편성,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즉시 구입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778개소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도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 중 중증환자 발생 시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으로 이송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올 여름 코로나19 유행은 8월 말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립대, 이륜차 부품 개발·정비 인력양성 협약

할리데이비슨코리아 광주점과

전남도립대는 지난 20일 이륜자동차 부품 개발 및 정비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할리데이비슨코리아 광주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에 대비, ▲이륜자동차 분야의 공동연구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정비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정비품질 개선에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립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가 자동차 산업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벼 재배 면적 79% 재해보험 가입

도, 보험료 자부담 10%로 낮춰

올해 전남지역 벼 재배 면적 11만 7000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전체 벼 가입 대상 면적(14만 9000ha)의 79%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64% 수준이다.

지난 3월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가입 제고 대책을 세워 추진한 성과라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전남도는 농협과 협업시스템을 구축,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태풍, 호우 등 피해는 물론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먹노린재 등 피해까지 보장받는다.

해남지역 한 농가는 1ha 벼 재배면적에 대해 보험료 10%의 자부담 9만 500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 호우피해로 자부담금의 30배인 286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는 농가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책으로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며 "올 하반기 10월과 11월 판매하는 마늘, 양파 품목도 판매 시기에 맞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도의병의 혼, 그 영원한 별빛을 찾아'

도 '2024 남도의병 콘텐츠 공모전'...스토리·캐릭터·웹툰 등

전남도가 '2024 남도의병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남도의병의 혼, 그 영원한 별빛을 찾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남도의병의 활약상을 그린 스토리, 캐릭터, 웹툰 3개 분야로 나눠 작품을 모집한다.

제작 대상 의병은 임진왜란 전후 의병 5명과 대한제국 전후 의병 5명이다.

전남도는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 활약상에 비해 콘텐츠가 부족한 의병 10명을 선정했다.

임진왜란 전·후로는 김충수(무안), 박광전(보성), 왕의성(구례), 임환(나주), 황대중(강진) 의병 등이 꼽혔고 대한제국 전·후로는 고광순(담양), 기삼연(장성), 심수택(함평), 양희일(화순), 황병학(광양) 의병 등이 선정됐다.

응모는 개인이나 3인 이내 팀으로 가능하며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분야별로 대상 1편(250만 원), 최우수상 1편(150만 원), 우수상 2편(70만 원), 장려상 3편(50만 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당선작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교육, 홍보, 전시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나주 공산면 일대 36만 3686㎡ 부지에 총사업비 42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연면적 6994㎡) 규모로 조성되며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체험시설 등을 갖춘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노인돌봄 종사자 수당 10만원씩 지급

전남도는 노인돌봄 종사자에게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인 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가사 지원 등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건강 악화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전남도는 한과 기간에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고독사 발견 등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는 종사자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심리치리비와 심리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노인돌봄 종사자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에 처우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기관 46개소에 위탁해 생활지원사 3400여 명이 6만여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양성평등주간 행사

도, 9월 1~7일 체험·홍보

전남도가 양성평등주간(9월1-7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전남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무안군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가족친화인증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평등한 전남,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다짐 퍼포먼스, 가사와 돌봄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가족생활탐구 영상 상영 등이 이뤄진다.

또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홍보부스가 이날 오후 4시 남악중앙공원 일대에 마련되고 일일 속 양성평등 실천을 다짐하는 '행복한 여름밤 산책' 프로그램도 오후 7시부터 열린다.

오는 9월 3일에는 오후 1시부터 전남도청 영인실에서 배우 최수종이 강사로 나서 '소중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야기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살려 다양성과 공정함을 존중하는 전남을 만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내용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